싱가포르 정유산업의 현황

1. 머리말

최근 싱가포르의 정유산업은 위탁정제의 쇠퇴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장기위탁정제의 감소분을 스파트 위탁정제가 메꾸고 있지만, 고객과 투입유종이 크게 바뀌었다. 융통성을 살리기 위해 정유회사들은 시설고도화가 바람직한 투자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석유무역의 중계역할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석유화학 부문에서 역할이 현저해졌다.

지난 9월에 예정보다 16개월 앞당겨 실시한 총선거에서 집권 이광요수상의 국민행동당이 예상대로 압승했다. 이와같이 선거를 앞당긴 것은 야당에 대한 전술적인 술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출 및 GDP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용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자는 것이 의도였다. 밝은 전망중에서 지난해 7% 감소를 보인 석유산업은 금년에 들어 강한 회복조짐을 보여온 결과, 싱가포르의 정유업자들은 이에 고무되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지난 2년에 걸쳐 제3자의 장기 위탁정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스파트 위탁정제 거래의 증대로 전체 원유처리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금년 중반까지 평균 원유정제량은 75만B/D를 보였는데, 이것은 싱가포르 정제능력의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스파트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잉여원유는 싱가포르에서 위탁정제된 것 같다. 이와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기 위탁정제량 17만B/D중에서 中國의 Sinochem社가 9만B/D, 말레이지아의 Petronas社가 7만5천B/D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정유공장의 정기 보수기간이 끝난 지난 5월, 스파트 위탁정제량이 급증했는데, 투입원유의 主宗은 이란산 원유와 말레이지아산 원유이었다. 6월의 싱가포르의 原油 수입량은 5월에 비해 70%가 증가했다. 이와같은 증가와 함께 투입유종도 극동산 原油에서 과거 3분의 2를 차지했던 중동산 원유로 바뀌었다. 그곳 정유업자들은 수익성을 올리는 데에는 중동산 중질유라며 수익유종으로 베트남산 Bach Ho 원유가 새로이 끼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6월의 장기 위탁정제계약에 따라 Shell Eastern社는 베트남산 원유의 전량(약15만B/D)을 싱가포르에서 위탁정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에는 그들의 원유를 일본의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했었다.

2. 석유제품의 소비증가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후 日本은 제품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일본의 정제업자와 무역업자들은 지난해까지 싱가포르에서 적극적으로 위탁정제를 해왔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 제품가격이 떨어져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대부분 위탁정제를 중단했다. 금년 8월 하순경 日本의 3개 석유회사는 또다시 동남아시아 및 중동산 原油의 스파트 위탁정제 계약을 싱가포르와 추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거래의 목적은 무역을 하기 위한 것이며, 제품을 일본에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비록 日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석유시장에서 최대의 석유제품 소비국이긴 하지만, 泰國, 韓國, 中國, 기타 국가들의 소비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석유제품 소비증가량은 1995년까지 150만B/D가 될 것으로 예정되며, 증가량의 거의 대분이 경질유 제품이다. 따라서 정유공장이 이지역에 새로 건설되지 않을 경우 다

른 지역으로 부터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싱가포르 정유업자들은 점차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키 위해 시설고도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수송용 연료유 수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Shell社는 2억4,000만달러를 투입, 하루 4,000톤 규모의 촉매 분해시설과 프로판과 프로필렌의 분리장치 등을 건설하고 있다. Mobil은 8,000만달러를 들여 2만 3,000B/D 규모의 수소분해장치를 건설하고 있으며, ESSO는 5,000B/D 규모의 비스브레이커 건설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유회사(SRC)는 2만6,500B/D 규모의 수소분해장치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건설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중동산의 수출지향 정유공장 및 국영정유공장으로 나오는 제품과의 경쟁에 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도화 시설들이 가동되면 이 정유공장들은 보다 싼 투입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체에서 나오는 연료유와 수입되는 연료유(Straightrun)는 결국 이런 분해시설의 원료가 될 것이다.

3. 석유저장시설

현물거래의 증가로 싱가포르의 저장능력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독립계저장업자의 이익의 증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전체 정유회사의 저장능력은 4,900만 배럴이고 두 개의 독립계저장회사인 Van Qmmeren 각 Paktank의 합계 저장능력은 540만 배럴 수준이다. 석유메이저들은 그들의 정유공장내에 저장탱크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이것은 무역업자들에게는 별로 이점이 없다. 현재 독립계의 저장시설은 완전가동되고 있다. Paktank社는 해상저장시설에 인접한 곳에 또다른 저장기지를 7,500만달러를 들여 건설할 계획이며, 함브르크에 있는 Oiltanking社도 Mabanaft 무역회사와 합작으로 싱가포르에 제3의 저장시설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Oiltanking社는 또 이웃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泰國 등에 저장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Oiltanking社와 Paktank社가 합작으로 싱가포르에 저장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가 석유무역시설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지에 선물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석유선물 시장이 설립된다면 후보지로는 동경보다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인 싱가포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이며 현지 모든 증권사를 감독하고 있는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지난해 뉴욕상품거래소(NYMEX)와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와 선물시장을 개장하여 연계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그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나올 것이다.

4. 석유화학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Shell社가 주도하고 있다. 몇달전 Anglo-Dutch 메이저가 싱가포르의 국영 석유화학단지(10억달러 규모)에의 싱가포르 정부의 50% 투자분의 주식매각의 입찰에 응했다. 석유화학 콘소시움에 참여한 일본회사들은 처음에는 입찰에 반대했으나 후에는 정부의 지분이 적어도 10%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Shell社는 싱가포르에 있는 계열사를 재편성하고 상호도 Shell Eastern Chemicals 로 고쳤다. 동사가 석유화학 투자를 맡아서 하는데, 이 투자에는 동사의 싱가포르 정유공장 옆에 건설중인 이소프로필알콜(IPA)제조 플랜트가 포함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IPA는 Shell International Chemicals사가 이지역에 판매하게 된다.

싱가포르가 주요 정제센터로서의 역할이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은 250년의 짧은 역사상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망은 빗나갔고 앞으로 계속 정제센터로서의 역할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장기 위탁정제계약은 스파트 위탁정제로 바뀌었고 주 고객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며 석유화학거래 및 무역의 중계자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 ◎

〈피트롤리엄 이코노미스트〉

에너지절약 365일